

##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유호남기(遊湖南記)」 연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김종수\*

###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강한 산수벽(山水癖)과 남유(南遊), 「유호남기」 | 참고문헌       |
| 3. 전북지역 유람기의 특징적 양상            | <Abstract> |

### 국문초록

19세기 후반을 활동기로 삼았던 연재 송병선은 우암 송시열의 9세손으로, 아우인 심석재 송병순과 함께 연재학파를 창시·공유한 홍유이자 우국지사다. 송병선은 평생토록 독서와 강론·강학·저술 활동에 주력한 산림형의 재야 유학자이기도 했다. 그런데 송병선은 강론·강학 활동에 뒤이은 저술과 관직 진출에의 저울질로 요약되는 생애 세 번째 단계인 학문적 심화기에 진입한 이후로, 전국의 명산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유람에 임한 사실이 주목된다.

그중에서 1869년(39세)에 호남의 산수를 심방하고 남긴 「유호남기」의 경우, 송병선이 찬한 22편 유기의 평균적인 면모를 간직하고 있을뿐더러, 과거 이 지역의 산수의 실경과 역사적 상관물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전북권의 산수를 대상으로 한 <지리산북록기>(남원)·<도솔산기>(고창)·<변산기>(부안)·<덕유산기>(무주) 4편을 중심적인 서술단위로 설정하고, 여타의 유람기를 두루 원용하는 차원에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E-mail: welcome-to@naver.com

그리하여 전북권의 산수를 대상으로 한 4편에 유람기에는 불교적 서술단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포착하였다. 또한 송병선이 기술한 사찰·암자와 그 주변 전경은 지리산·도솔산·변산·덕유산 묘사와 극히 조응하는 맥락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송병선이 기록한 유교적 서술단위도 일정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불교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신에 스승인 송병선과 동참한 술한 문인들의 명단이라든가, 산중에서 진행한 독경·강학 활동은 연재학파의 연대감과 면학 열기를 아울러 엿보게 해주는 장면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유호남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안목 있는 산수 품평과 더불어, 전북의 명산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의 관점에서 수행한 실경 묘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변산기>의 경우, 이상에서 논급한 제반 특징을 간직하고 있을뿐더러, 변산반도의 곳곳을 유려한 문장으로 그려내어 주목된다. 또한 『유호남기』는 송병선이 직접 두 발로 등반한 결실이기예, 그의 유람이 ‘양기(養氣)’로 표현한 기력 배양을 겸한 스포츠의 성격을 겸하고 있음이 간취된다.

주제어 : 연재 송병선, 산수 유람, 유호남기, 실경 묘사, 전북지역, 스포츠

## 1. 머리말

조선 최후기인 헌종(憲宗)·고종(高宗) 연간을 활동기로 삼았던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9세손으로, 중제(仲弟)인 심석재(心石齋) 송병순(宋秉琿, 1839~1912)과 함께, 근세 유학의 일파인 연재학파를 창시·공유한 홍유(鴻儒)이자 순국지사이다. 송병선은 한평생에 걸쳐서 학문 연구와 저술·강학 활동에 주력함으로써, 일제에 의한 병탄(倂呑) 야욕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 세도(世道)를 지탱하고 유학적 진리의 세계를 진작하기 위해 절치부심한 산림형의 재야 유학자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1905년에 강행된 을사늑약에 맞서 서울의 중화전에서 고종과 청대(淸對)한 직후에, 고향인 회덕(懷德)의 석촌정사(石邨精舍)에서 비분에 찬 순도(殉道)를 감행함으로써, 향년 70세의 나이로 삶을 비장하게 마감하게 된다.

그에 따라 송병순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그가 견지했던 위정척사론과 생애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역사서인 『동감강목(東鑑綱目)』을 비롯한 몇몇 저서와 문인록(門人錄) 및 유람기(遊覽記)의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결과 연재

학파의 윤곽과 특징적인 양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었지만, 여타의 근세 유학의 학파에 비해서 여전히 연구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의 논의를 통해서도 유다른 산수 취향을 발휘했던 송병선이 남긴 총 22편의 유기(遊記) 중에서, 호남권의 산수를 유람한 뒤에 작성한 「유호남기(遊湖南記)」<sup>1)</sup>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연재학과 연구의 폭을 확장하는 도정에 일조하고자 한다. 「유호남기」는 호남권의 산수를 대상으로 한 기행문이라는 점 외에도, 매우 복합적인 의미망(意味網)이 감지되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송병선의 문집인 『연재집(淵齋集)』에는 9편에 이르는 호남 유람기가 수록되어 있어서, 그가 남긴 22편의 유람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 또한 전남 지역의 유기가 5편이고, 전북권의 산수 유람기가 4편이어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물론 장문으로 이뤄진 <서유기(西遊記)>(1867, 32세)와 <동유기(東遊記)>(1868)·<유교남기(遊嶠南記)>(1879) 따위의 작품에 비해 저술 분량은 상대적으로 단출한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호남기」의 작품성이며 문헌적 가치가 결코 감쇄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19세기 후반 무렵의 호남의 주요 산수며 역사적 유적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유호남기」에 수록된 아홉 편의 작품 중에서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유람기 4편의 대체를 분석해서 소개함으로써, 연재학과 연구의 저변을 확장함과 동시에, 또한 전북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유의미한 계기를 제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 2. 강한 산수벽(山水癖)과 남유(南遊), 「유호남기」

송병선이 남긴 유람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22편 전체를 심도 있게 분석한 「연재 송병선의 유기문학 연구」(2011)가 단연 돋보인다.<sup>2)</sup> 이 글을 통해서 필자는 송병선이 유기를 창작한 동인과 서술 체제, 그리고 예술과 도덕적

1) 대전시 동구에 소재한 용동서원(龍洞書院) 내의 (사) 문충사(文忠祠) 소장본인 『南遊記』의 내지에 표기된 ‘遊湖南記’라는 표제(標題)를 취한 것임. 『유호남기』에는 본고에서 취급한 <遊昇平記>와 <遊月出·天冠山記>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2) 이병찬, 「연재 송병선의 유기문학 연구」, 『어문연구』 68, 어문연구학회, 2011, 333~363쪽.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송시열을 의미하는 ‘先子’를 ‘돌아가신 아버지’로 잘못 번역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353쪽) 우암의 후손들은 『宋子大全』을 『先子大全』으로 칭하곤 했다는 사실을 첨언해 둔다.

경계의 융화라는 시각에서 유람기에 내포된 특징적 양상들을 조목조목 분석해 보임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제공하였다. 뒤이어서 송병선의 첫 번째 유람기인 <유황산급제승기(遊黃山及諸名勝記)>(1866)를 검토한 논문도 참고할 만하다. 저자는 송병선의 <유황산급제승기>가 19세기 중반에 춘추대의 정신과 직(直) 사상을 강조하고, 성인의 도(道)와 이적(夷狄)의 행위를 구분하여 존화양이론(尊華攘夷論)을 완성시키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여행기라는 평가를 제시했다.<sup>3)</sup> 한편 근년에 이르러 송병선이 시도한 유람을 ‘소풍과 놀이’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도 눈길을 끌게 한다.<sup>4)</sup> 그러나 차례대로 열거해 보인 선행 성과 이후로는 더 이상의 유람기 연구가 이뤄지질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송병선이 31세가 되던 해의 4월에 찬(撰)한 <유황산급제승기>는 지난 1653년(효종 4) 7월에 송시열이 시남(市南) 유계(俞槩, 1607~1664) 등과 더불어 연강(燕江)에서 배를 타고 황산까지 가면서 검담(黔潭)·죽림(竹林)·둔암서원(遯巖書院) 등지를 탐방한 기유첩(記遊帖)의 기록을 재현해 보인 것이다.<sup>5)</sup> 숙부인 입재(立齋) 송근수(宋近洙, 1818~1902)도 동참한 1866년의 황산 유람은 송병선을 위시한 은진(恩津) 송문(宋門)의 후손들이 ‘선자(先子)’<sup>6)</sup>로 칭한 우암을 닮아야 할 동일시 모델로 설정한 정황을 뚜렷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송병선이 남긴 22편의 유기에서 ‘문정공(文定公)’<sup>7)</sup>[우암]의 지난 행적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숙부 송근수와 백부인 수종재(守宗齋) 송달수(宋達洙, 1808~1858)가 유기에 더러 등장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가 하면 송병선이 총 22편에 달하는 산수 기행문을 남긴 이면에는, 그의 유다른 산수 취향이 발휘된 결과이기도 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51세 때 찬한 <서벽정기(棲碧亭記)>는 송병선이 품었던 강한 산수벽(山水癖)이 잘 드

- 3) 이철성, 『淵齋 宋秉璿의 黃山舟遊와 문화경관 인식—「遊黃山及諸名勝記」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70, 고려사학회, 2018, 317쪽.
- 4) 유영봉, 「연재 송병선의 놀이방식과 의의 - 그의 유기를 바탕으로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5-8,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1, 315~325쪽.
- 5) 宋秉璿, 『淵齋集』 卷19(한국문집총간 329), 「雜著」, <遊黃山及諸名勝記>, 한국고전번역원, 2004, 317쪽, “昔文正先祖, 與市南諸公, 自燕江, 舟下黃山, 有記遊帖, 余每欲依此遊遊而不可得, 歲丙寅夏四月, 叔父約諸長老, 將會于文義茨江, 從水道而往, 既卜日.”
- 6) 宋秉璿, 『淵齋集』 卷6, 「書」, <上尹素齋(乙丑五月十四日)>, 102쪽, “先子大全, 過齋金先生, 嘗欲倣朱書筭疑之例, 累次往復于文敬族祖, 而竟未果, 伯父亦有志未就矣.”
- 7) 宋秉璿, 『淵齋集』 卷20, 「雜著」, <東遊記·自靑川至驪州記>, 334쪽, “俄而泊清心樓 ... 額揭文正公筆, 筆勢雄健, 與樓爭衡; <自萬瀑洞至摩訶衍記>, 339쪽, “刻文正公所寫朱詩物外祇今成跌宕 ...”; <自摩訶衍歷隱仙臺至楡岾寺記>, 340쪽. “峯上有文正公題名, 又有先生所書朱夫子南嶽詩, 而未玩尤恨.”

러나 있어 주목된다.

“나는 산수를 지나치게 좋아하여, 매양 아름다운 천석(泉石)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문득 땅을 골라 집을 지을[卜築] 뜻을 품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에 (덕유산 내) 횡천(橫川)의 경관이 빼어나다는 소리를 듣고는,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유람하면서 살살이 뒤지고 찾아다니다가 돌아왔다.”<sup>8)</sup>

위의 글은 송병선이 간직했던 강한 산수 취향을 제대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리하여 송병선은 이듬해인 1886년 6월에 덕유산 횡천의 무이봉(武夷峯) 아래에 서벽정을 건립하기에 이른다.<sup>9)</sup> 이에 송병선은 “산은 더욱 수려해지고, 물은 더욱 맑아졌으며, (정자) 난간 바깥의 못 멧부리들이 마치 장차 두 손을 마주 잡고 인사하며 축하하는 양 하여, 정(情)을 맺음이 그윽하고 심원하니, 거의 만년[晩暮]의 소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며 흡족한 심회를 토로해 보이기도 하였다.<sup>10)</sup> 송병선이 덕유산 심곡에서 서벽정 경영에 착수한 처사란, 그가 지난 1869년(34세) 5월에 무주(茂朱)의 설천(雪川)과 횡천 일대를 유람하고 <덕유산기(德裕山記)>를 지은 해로부터 20년 만의 일이다.<sup>11)</sup> 이는 송병선이 덕유산을 두고, “기인(畸人)과 일사(逸士)들이 왕왕 그 사이에서 배회[徜徉]하는데, 내가 부처 사는 (옥천의 오산) 땅과 불과 1백 리도 안 된다.”는 말로써,<sup>12)</sup> 덕유산의 심곡을 자신의 은둔처로 점지(點指)해 왔다는 사실을 예들려 기술해 두었다. 차후 송병선은 서벽정 경영(經營)을 통해서 독서와 저술·강학 활동, 그리고 음풍영월과 소요유(逍遙遊)의 만끽 따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정노선(自靖路線)의 이행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나가게 된다.<sup>13)</sup>

8) 宋秉璿, 『淵齋集』 卷26, 「記」, <棲碧亭記>, 457쪽, “余癖於山水, 每遇泉石之佳, 輒有卜築之志, 而不可得也, 往歲. 聞橫川之形勝. 欣然恣遊窺搜而歸.”

9)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宋哲憲]」, <丙戌(先生五十一歲)>, 451쪽, “六月, 棲碧亭成, 先生自甲申疏事以後, 踪跡難安, 慨然有深入自靖之意 ... 就武夷峯下築亭.” 이어서는 ‘송철헌’은 생략함.

10) 宋秉璿, 『淵齋集』 卷26, 「記」, <棲碧亭記>, 457쪽, “於是, 山益秀, 水益清, 欄外羣巒, 若將拱揖而賀, 結情幽遠, 庶可遂晩暮之願矣.”

11)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德裕山記>, 363쪽, “過雪川, 路出東峽 ... 到橫川, 問水城中臺 ... 時己巳五月下澣也.”

12)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德裕山記>, 363쪽, “畸人逸士, 往往徜徉於其間, 去吾寓地, 不過百里.”

13) 송병선이 서벽정에서 이행한 자정노선에 대해서는 김종수, 「연재 송병선의 자정노선과 무주 서벽정 영건」, 『전북학연구』 9, 전북학 연구센터, 2023, 43~56쪽을 참조할 것.

한편 송병선은 상기 인용문의 연장선에서 자신이 호남의 명산을 대상으로 하여 유람에 나선 이유도 아울러 밝혀 두기도 했다. 그중에는 <지리산북특기>에서 “나는 소싯적부터 유람[遊]을 좋아하여, 국내의 명승(名勝)을 대략 이미 관람[觀]함을 이루었지만, 유독 호남은 그렇지 않아서, 1869년 2월에, 마침내 남원(南原)에 도착했다.”<sup>14)</sup>는 34세 적의 기록을 포함해서, 1898년(63세) 늦봄에 찬(撰)한 <유월출·천관산기>의 서두에서 피력한 아래의 글도 눈여겨볼 만하다.

“나는 호남의 산수를 거의 두루 다 거쳐서 유람하였으나, 월출산과 천관산은 미처 갇지 못한 빛이 있는 양 생각하였다. 때문에 1898년 늦봄에, 이에 (임피현에) 성묘[省楸]를 가는 길로 인하여 삼종제(三從弟)인 위옥(衛玉)[자] 병원(秉瑗)과 명중(鳴仲) 최봉서(蔡鳳瑞) ... (중략)... 등의 제군(諸君)과 더불어 영주(瀛洲)의 무산(戌山)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니, 윤(閏) 3월 6일(己未)이다.”<sup>15)</sup>

윗글에는 송병선이 노년에 이르러 월출산과 천관산에 대한 유람에 나선 이유와 함께, 그와 여정(旅程)에 동행한 문인(門人)들의 명단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다. 특히 서두 부분의 언술은 송병선이 호남의 명산 유람을 매우 단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구상하에 시도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 이면에는 “성묘[省楸]를 가는 길” 운운한 대목과도 깊이 연계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상 송병선이 “분묘(墳墓)의 향읍[鄉]”<sup>16)</sup>이라고 일컬은 임피현(臨陂縣)의 경우, 일찍 사별한 완산이씨(完山李氏) 부인(1887)과 이씨(李氏) 모부인(母夫人, 1891) 및 부친 송면수(宋勉洙, 1900)의 묘소가 순차적으로 이장되어 안치된 매우 인연이 깊은 고장이다. 그 연장선에서 송병선은 1892년 4월에 이르러 성묘(省墓)를 한 후에 “향약(鄉約)을 베푸는” 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그런데 적시한 이들 사안은 강한 명분 의식과 도덕적 지향성에의 의지가 투영된 임피향

14)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智異山北麓記>, 358쪽, “余少好遊, 方內名勝, 略約已觀, 而獨於湖南未也. 歲已巳大壯之月, 遂行到南原.” 『주역(周易)』의 대장괘(大壯卦)에 전거를 둔 ‘대장’은 양기(陽氣)가 성해져 가는 2월을 나타낸 것이다.

15) 宋秉璫, 『淵齋集』 卷22, 「雜著」, <遊月出·天冠山記(戊戌)>, 384쪽, “余於湖南山水, 遊歷殆遍, 而月出·天冠, 惟有未償之債, 故歲戊戌暮春, 乃因省楸之行, 與三從弟衛玉秉瑗, 及蔡鳴仲鳳瑞 ... 諸君, 約會於瀛洲之戌山, 閏三月六日己未.”

16) 宋秉璫, 『淵齋集』 卷23, 「序」, <臨陂鄉約序>, 406쪽, “臨瀛爲縣近海, 俗尙貨利 ... 余以墳墓之鄉往來.”

약을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 자세히 논급되었으므로,<sup>17)</sup> 더 이상의 확장된 논의는 자제하기로 한다. 금번 논의와 관련하여 더 중요한 점은 송병선의 경우, “분묘(墳墓)의 향읍[鄉]”인 임피현과의 인연으로 인하여 호남 명산 유람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또한 앞서 소개한 무주 서벽정과 “분묘(墳墓)의 향읍[鄉]”인 임피현을 왕래하는 성묘 일정 등으로 인하여 호남, 특히 전북 지역과 송병선의 인연은 더욱 각별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거론한 송병선의 강한 산수벽과 덕유산 자락의 서벽정 영건(營建), 그리고 주기적인 임피현의 성묘 일정 등의 사안과 연계된 채 진행된 송병선의 ‘남유(南遊)’<sup>18)</sup> 기행문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뒤이을 논의를 위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리산북록기(智異山北麓記)>(1869·2), <서석산기(瑞石山記)>(1869), <적벽기(赤壁記)>(1869), <백암산기(白巖山記)>(1869), <도술산기(兜率山記)>(1869), <변산기(邊山記)>(1869), <덕유산기(德裕山記)>(1869·5), <유승평기(遊昇平記)>(1882·5), <유월출·천관산기(遊月出·天冠山記)>(1898·윤 3월).”

서론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유승평기>와 <유월출·천관산기>를 제외한 7편의 산수 기행문이 대전시 동구의 문충사 소장본인 『남유기(南遊記)』에는, 『유호남기』라는 제하에 차례대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괄호에 연월이 표기되지 않은 이유는 저자가 해당 산의 유람 시기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리산북록기>에서 <변산기>에 이르는 6편 유람기의 경우, 여행 일정이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이어지고 있음이 감지된다. 즉, 송병선은 적기한 구간의 명승을 1869년 2월에 착수하여 근 4개월에 걸쳐서 유람한 뒤에, 덕유산에 대한 등람(登覽) 일정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한편 위의 인용문에서 나열한 9편의 유기 중에서 전남 지역의 유람기 5편을 제외한 4편의 작품, 곧 <지리산북록기>·<도술산기>·<변산기>·<덕유산기>가 전북의 산수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전북권 유람기의

17) 김종수, 「연재 송병선의 임피향약 연구」, 『민속학연구』 52, 국립민속박물관, 2023, 111~137쪽.

18) 宋秉璿, 『淵齋集』 卷2, 「詩」, <次相好亭韻>, 40쪽, “歲戊戌春, 余南遊到昇平, 登斯亭...”; 같은 책, 「雜著」, <邊山記>, 361쪽, “邊山, 海嶽也 ... 是歲始南遊, 將尋茲山之勝.” 물론 송병선은 영남의 명승을 유람할 때도 ‘남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年譜」, <丙寅(先生三十一歲)>, 426쪽): “八月, 遊金烏山, 先生與仲氏, 約同志南遊.”

특징적 양상을 몇몇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개괄하되, 전남과 여타 지역의 유기를 비교의 관점에서 아울러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에 좀 특별한 기록적 가치를 내장한 <변산기>의 경우, 별도의 절(節)을 할애해서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하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

### 3. 전북지역 유람기의 특징적 양상

먼저, 이번 논의에서 취급한 9편의 유기 가운데서 <유승평기>(47세)와 <유월출·천관산기>(63세)를 제외한 7편의 작품이 모두 1869년(39세)에 작성된 이유를 간략하게 해명하기로 한다. 일단, 이 시기는 송병선이 향유한 삶을 성장기와 수학기, 그리고 학문적 심화기와 자정노선의 이행기로 구획한 네 단계 중에서, 강론(講論)과 유람·저술 활동 및 출사(出仕)의 저울질로 요약되는 세 번째 단계인 학문적 심화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송병선의 생애에서 27~48세에 이르는 이 시기는 매우 복합적인 사건들이 혼재한 형국을 취한 가운데, 관직 진출을 통해서 세상에 유위(有爲)한 일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품었던 시절이기도 했다. 잦은 강론 모임[講會]과 명승 유람, 그리고 강학·저술 활동과 관직 진출에의 저울질로 정리되는 세 번째 구간은 학문적인 심화라는 결실로 귀결되는 흐름을 보여준다.<sup>19)</sup>

이 같은 추이에 편승해서 송병선은 1869년 7월에 생애 첫 번째 저서인 『근사속록(近思續錄)』을 선보이게 된다.<sup>20)</sup>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조선판 『근사록』이라는 평을 받는 『근사속록』<sup>21)</sup>은 동국(東國)의 제현(諸賢)이 성취한 학문적 성과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그간 송병선이 기울인 학문적 열정의 정도를 아울러 엿보게 해주는 저서다. 아무튼 송병선은 『근사속록』을 완성해 가는 기간에도 틈틈이 겨를을 내어 유람에 나섰을 정도로 강한 산수벽을 발휘한 정황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송병선이 주기적인 유람에 나서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오직 인자(仁者)만이 능히 즐길 수 있는” 산수의 즐거움을 통해서, 그 “오묘한 도(道)를 자세히 살피고, (이를) 정신(精神)으로 깨달아 알아차려, 호연지기(浩然之氣)를

19) 김종수, 『연재 송병선의 생애와 학문세계』, 『한국유교문화』 1, 한국유교문화진흥원, 2023, 172쪽.

20) 宋秉璿, 『淵齋集』 卷50, 『年譜』, <甲戌(先生三十九歲)>, 429쪽, “七月, 近思續錄成.”

21) 김종수(2023), 앞의 책, 183쪽.



배양하기 때문”이라는 변론이 주목된다.<sup>22)</sup> 다시 말해서 송병선의 경우, “그 기(氣)됨이 의(義)와 도(道)에 배합되는”<sup>23)</sup>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한 목적에서 즐겨 유람에 임한 것이다. 1868년 봄에 관동(關東)의 명승을 두루 관람하고 지은 유기를 『양기록(養氣錄)』으로 명명했던 이유<sup>24)</sup>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송병선은 『맹자(孟子)』의 호연지기를 두고, “예로부터 도학문장(道學文章)이, 반드시 여기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확신했던 터라,<sup>25)</sup> 산수 유람과 도학·문학(文瀾)이 궤를 나란히 하는 정신적 세계를 추구한 사실도 주목된다. 따라서 이하에서 논의될 전복의 산수를 대상으로 한 유람기 4편도 적시해 보인 유람 철학의 기초하에서 작성되었을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 1) 불교적 서술단위

전복의 명산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리산북록기>·<도솔산기>·<변산기>·<덕유산기>의 경우, 대체로 여타의 유기 18편과 동일한 서술 체제를 취하고 있는 편이다. 그런가 하면 변산을 ‘해악(海嶽)’으로 소개한 <변산기>의 경우,<sup>26)</sup> 그곳 일대와 해상(海上)에 대한 실경 묘사가 망라되어 있어 이채를 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4편의 유람기를 여타 지역의 그것과 비교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편, <변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節)을 할애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일단, 전복의 산수를 대상으로 한 송병선의 유람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로는, 사찰(寺刹)과 암자(庵子) 및 불교(佛教)의 문화재를 포함한 불교적인 내용이 가장 풍부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변산기>만 하더라도 개암사(開巖寺)·실상사(實相寺)·내소사(來蘇寺)와 칠성암(七星菴)·도솔암(兜率菴)·월명암(月明菴)·은적암(隱寂菴)·청련암(靑蓮菴)·사자암(獅子菴)·향로암(香爐菴) 등과 같은 10종의 사암(寺庵)들이 차례대로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게 한다. 반면에 유교적 문화재는 정읍(井邑)에 소재한 송시열의 마지막 “수명(受命) 유허(遺墟)”인 고암서원(考巖書院)이 유일해서 대조를 연출하고

22) 宋秉璿, 『淵齋集』 卷23, 「序」, <送朴仁瑞陽元北歸序>, 392쪽, “然山水之樂 惟仁者能之, 察之以道妙, 會之以精神, 以養浩然之氣, 故夫子川上發歎, 孟子觀水有術.”

23) 朱熹, 『孟子集註』, <公孫丑章句(上)>의 제2장,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餒也.”

24)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3, 「行狀」, <戊辰>, 478쪽, “戊辰春, 陪叔父先生, 遊金剛山, 周覽關東諸勝而歸, 有記行一篇, 名曰養氣錄.”

25) 宋秉璿, 『淵齋集』 卷6, 「書」, <與元玉田(己巳九月四日)>, 108쪽, “至於山水遊觀, 自古道學文章, 未必不由於此, 以養浩氣, 以助文瀾, 各自有術.”

26)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1쪽, “邊山, 海嶽也.”

있다.<sup>27)</sup>

이 같은 정황은 1881년(고종 18년) 11월에 국왕에게 올린 <신사봉사(辛巳封事)>를 통해서, “액속(掖屬)의 무리가 동궁(東宮)의 복(福)을 구하기 위한다고 뇌까리면서 사찰을 왕래하면서 함부로 시주를 베풀거나”, 혹은 불사(佛事)에 도움을 줄 작정으로 승니(僧尼)들이 군읍(郡邑)을 싸돌아다니면서 관장(官長)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도움을 강권하는 등의 행태를 매섭게 비판했던 송병선의 평소 소신<sup>28)</sup>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처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송병선이 불교와 관련하여 묘사한 유람기의 해당 내용을 선별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송병선은 그가 산속에서 대면한 사찰·암자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대상을 발견하면, 건물과 주변 정경을 아울러 묘사하는 일관된 서술 기법을 적용한 특징이 포착된다. 이를테면 <지리산북록기>에 수록된 아래의 실상사(實相寺)와 약수암(藥水菴)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지목할 수 있다.

“소년대(少年臺)를 지나서 실상사에 도착하였다. 평평한 땅에 자리한 절은, 커다란 내가 푸른 빛으로 휘돌았고, 불당(佛堂)은 높이 백척이나 솟구쳤는데, 단층(單層)으로 남주(南州)에서 유명하다. 또 꺾어서 서쪽으로 가니, 산기슭이 험준하고 높는데, 수목은 울창하다. 5리를 걸어 약수암에 드니, 텅 빈 듯 깨끗하여 환하게 빛이 난다. 창밖의 대나무 숲이 무성하니 참으로 사랑스러워, 그윽하고 아득한 정취[趣]가 있으니, 더욱 인간 세상 같지 않아 보인다.”<sup>29)</sup>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되듯 송병선의 사찰·암자 묘사는 매우 실증적인 특징이 발견되며, 또한 소규모의 암자와 대형 사찰 간에 하등의 차별을 두지 않는 서술 체제를 일관되게 적용한 점도 주목된다. 이 같은 사례는 고창(高敞)에 소

27)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3쪽, “往井邑, 謁考巖書院, 入邑尋文正公受命遺墟.”; 宋時烈, 『宋子大全 VIII-附錄』 卷11(한국문집종간 115), 「年譜(10)」, <六十年戊辰(先生八十二歲)>, 한국고전번역원, 1993, 433쪽, “壬申, 至井邑, 癸酉辰時, 受命于所館.”

28) 宋秉璫, 『淵齋集』 卷3, 「封事」, <辛巳封事>, 43쪽, “竊伏聞掖屬輩, 稱爲東宮求福, 往來寺刹, 舍施之費, 傳說藉藉, 又或興造佛宇, 甚至僧尼夤緣憑藉, 恣行郡邑, 暴喝官長, 斂索閭里, 此不可使聞於人, 伏乞嚴加禁止.” ‘액속’이란 액정서(掖庭署)에 속하여 궁중의 굿은 일을 맡아 하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29)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智異山北麓記>, 358쪽, “歷少年臺, 到實相寺, 寺據平地, 大川遶碧, 佛堂高聳百尺, 以單層, 有名南州, 又折而西, 山麓峻岌, 樹木鬱蒼, 行五里, 入藥水菴, 虛白炯然, 牕外竹林, 蔚然可愛, 幽夔之趣, 益不似人間矣.”

재한 천년 고찰인 선운사(禪雲寺)와 도솔암(兜率菴)의 경우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저녁해가 다그쳐서 선운사에 투숙[投]했다. (사찰의) 열개를 엮어 만듬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금빛과 푸른빛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 평평한 땅을 산이 에워싼 탓에,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바가 없다. 오직 동백(冬柏)만이 싱싱하게 푸르려 정취를 자아낸다. ...(중략)... 또 꺾어서 위로 3~4리를 오르니, 도솔암과 마주쳤다. 바위에 기댄 채 골짜기를 굽어보고 있는데, 맑고 아득해서 속진[塵]을 끊은 듯하여, 여기서 조금 쉬었다.”<sup>30)</sup>

윗글에서 도솔암 묘사가 선운사 분량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암자 건물에서 특별한 관찰 포인트를 더는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대신에 앞의 약수암과 위의 도솔암 묘사에서 확인되듯이, 송병선이 사암 묘사에 주력한 이면에는 홍진(紅塵)이 난무하는 인간 세상과는 사뭇 다르게, 절진(絶塵)의 운치를 가슴 가득히 느낀 데서 촉발되었을 것임이 간취된다. 이는 송병선이 부안(扶安)의 내소사(來蘇寺)에 들른 뒤에, “그윽하고 심원하며 정려(淨麗)해서, 뜻과 생각이 문득 새로워지니, 진실로 이름난 가람(伽藍)이다.”며 극구 예찬했던 장면이라든가,<sup>31)</sup> 혹은 내소사와 이웃한 청련(靑蓮)·사자암(獅子菴) 두 암자를 심방하고는, 그 청절(淸絶)한 자태에 감탄을 표했던 장면<sup>32)</sup>을 통해서도 판단의 적실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 송병선이 장성(長城) 백암산(白巖山)에 소재한 영천암(靈泉菴)이 “또 극히 맑고 깨끗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백사를 제치고 열흘을 앉아있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sup>33)</sup>며 큰 아쉬움을 토로한 장면도 동일한 의미의 리듬을 공유한 또 다른 사례에 해당한다.

그 연장선에서 송병선은 남원 지리산의 영대(靈臺)를 접하고는 “하얀 조약돌이 넓게 펼쳐지고, 푸른 물결이 부딪치며 쏟아나 흐르면서, 수세[勢]에 따라

30)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兜率山記>, 361쪽, “迫曛投禪雲寺, 結構宏麗, 金碧爛然, 而地夷山圍, 無所瞻見, 惟冬柏蒼翠可意, ... 又折上數三里, 得兜率菴, 依巖俯壑, 淸迴絕塵, 少愜.”

31)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3쪽, “到來蘇寺, 幽深淨麗, 意想忽新, 信名藍也.”

32)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3쪽, “訪靑蓮獅子二菴, 淸絶可意.”

33)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白巖山記>, 361쪽, “寄一小寮, 俯臨深壑, 奇絶難狀, 是靈泉菴也 ... 菴又極瀟灑, 令人欲棄百事, 坐十日而不可得矣.”

기이함을 뽑내는” 장관을 인근 거주민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음을 겨냥하여, “또한 유인(幽人)·일사(逸士)가 자취를 성시(城市) 가운데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으나, 세인[世]들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임을 유비(類比)해 보이기도 했다.<sup>34)</sup> 송병선은 <덕유산기>의 서두를 통해서도 “기인(畸人)과 일사(逸士)가 왕왕 그 산속에서 어정거리곤 한다.”는 말로써,<sup>35)</sup> 세상과 등진 은둔 생활을 갈망해 보인 바가 있다. 이렇듯 송병선의 내면 한편에는 강한 “절진이숙(絶塵離俗)의 취향(趣)”<sup>36)</sup>이 잠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심리적 정향으로 인해 고요하고 청초·수려한 사암과 절경을 맞닥뜨릴 적마다 주된 관찰 포인트로 설정되었던 것 같다. 심지어 송병선은 장성 백암산의 영천암의 승(僧) 함월(涵月)의 거처에 비치된 “불경(經卷)과 다로(茶爐)가 소연(蕭然)[고적]하여 한 점 티끌도 없다.”고 칭찬하기도 했다.<sup>37)</sup> 이는 <신사봉사>에서 승려와 비구니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언술과는 판이한 찬사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송병선은 몇 편의 유기를 빌려서 벽에서 새긴 불상(佛像)의 유래를 전언한다든가, 혹은 사찰과 특정한 굴(窟)의 작명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우선 전자와 관련해서 송병선은 도술산 정상(頂)의 어느 소암(小菴) 부근의 석벽(石壁)에 새겨 그린 좌불(坐佛)을 발견하고는 “마치 금강산의 묘길상(妙吉祥) 같다.”는 소견을 피력한 후에, 백제(百濟)의 “검단(黔但) 선사(禪師)가 새긴[劃] 것”이라는 승려의 설명을 채록해 두기도 했다.<sup>38)</sup> 1868년 3월에 금강산 유람 길에 올랐던 송병선은 유점사(楡岾寺)로 향하는 도중에 미륵대(彌勒臺) 위의 가파른 석벽에 새겨진 묘길상 보살의 좌불을 명화(名畵)라 평하면서, 고려 말엽의 고승인 나옹(懶翁)이 그린 것이라는 전언을 채록한 바가 있다.<sup>39)</sup> 그런 연유로 두 좌불을 비교의 관점에서 서술할 수 있었고, 이는 송병선이 찬한 유기의 특징적인 일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송병선은 도술산 좌불상의 “위쪽에 불당(佛堂)이 공중에 매

34)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智異山北麓記>, 358쪽, “抵靈臺, 白磧廣鋪, 清流激瀉, 隨勢呈奇, 而居人猶未之知, 抑亦如幽人逸士, 晦跡藏踪於城市之間, 而世莫能知者耶.”

35)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德裕山記>, 363쪽, “畸人逸士, 往往徜徉於其間.”

36) 朴世堂, 『西溪集』 卷8(한국문집총간 134), 「記(四首)」, <石林庵記>, 한국고전번역원, 1994, 146쪽, “水落山石林庵 ... 背巖面壑, 蕭然有絶塵離俗之趣, 眞佳處也.”

37)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白巖山記>, 361쪽, “是靈泉菴也, 僧涵月 ... 視其左右, 經卷茶爐, 蕭然無一塵.”

38)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兜率山記>, 361쪽, “過此卽爲上兜率, 蓋在絶壁之巔, 作臺三層, 而下層構小菴 ... 仰見石壁, 刻畫坐佛, 如金剛妙吉祥, 僧言黔但禪師所劃.”

39)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東遊記·自摩訶衍歷隱仙臺, 至楡岾寺記>, 340쪽, “有彌勒臺, 上有百仞石壁, 刻畫坐佛, 極其宏偉, 儘是名畫, 懶翁所畵云, 傍有妙吉祥三字, 字畫甚大.”

달린 것이, 또한 흡사 (금강산)의 보덕굴(普德窟)과 같다고들 한다.”는 전언을 소개한 뒤에, “지금은 고증[徵]할 방도[所]가 없고, 다만 뚫은 흔적이 남아있고, 가로지른 나무[架木]와 쇠못 한두 개가 걸려있는 게 보인다.”는 정황 설명을 덧붙여 두었다.<sup>40)</sup> 아마도 송병선은 석벽에 새겨진 좌상의 은은한 예술성과 절벽에 가설하려 했던 신기한 불당의 모습에 잠시 매료되었던 듯하다.

두 번째로 송병선은 부안 내소사의 작명과 관련하여 “세상에서 전하기를 소정방(蘇定方)이 (이곳에) 와서 머물렀기에, 절을 이로써 이름하였다고들 한다.”는 구비(口碑) 전승과 함께, 봉래루(蓬萊樓)라는 명칭을 취한 사찰 내의 누각을 언급하였다.<sup>41)</sup> 이처럼 작명 경위를 둘러싼 기록은 영암군의 월출산(月出山) 구정봉(九井峯)의 바위에 관한 것도 매우 주목된다.

“구정봉의 서북쪽 꼭대기[頭]의 한 바위는, 휘돌리면 문득 움직이기에, 영암(靈巖)이라 일컫는다. (영암)군(郡)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이로 말미암았다고들 한다.”<sup>42)</sup>

이와 마찬가지로 송병선은 도솔산 선운사 근처에 있는 암굴(巖窟)을 두고, 세인들이 “전하여 말하기를, 신라(新羅)의 왕이 난리를 피하여 (이곳에) 와서 유숙[宿]하였기에, 진흥굴(眞興窟)이라 부른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sup>43)</sup> 또 송병선은 남원의 인월역(引月驛)에 도착한 후에, “민간[俗]에서 전하기를, 왜적을 격파할 때, 둥근달이 산에 걸린 채 지질 않았던 까닭에, (인월로) 이름하였다고들 한다.”는 구전(口傳)도 채록해 두었다.<sup>44)</sup> 이렇듯 송병선이 남긴 유기에는 사찰·암자와 굴(窟)·혈(穴)·대(臺)·봉(峯) 따위의 작명과 관련된 묘사가 다수 산재해 있지만, 지면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않겠다.

40)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兜率山記>, 361쪽, “上有佛堂懸空, 亦似普德窟云, 今無所徵, 但有鑿痕, 而架木鐵釘, 見掛一二矣.”

41)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3쪽, “歷覽隱寂菴, 到來蘇寺 ... 世傳蘇定方來留, 寺以是名云, 題名蓬萊樓.”

42)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遊月出·天冠山記(戊戌)>, 384쪽, “九井西北峯頭一巖, 撓之輒動, 稱以靈巖, 郡之得名由此云.”

43)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兜率山記>, 361쪽, “傍有巖窟, 傳言新羅王避亂來宿, 稱眞興窟.”

44)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智異山北麓記>, 358쪽, “抵引月驛, 俗傳破倭時, 月輪掛山下, 故名云.”

## 2) 유교적 서술단위

송병선이 찬한 유기에는 유교적 서술단위도 눈에 띄지만, 불교의 그것에 비해서는 극히 제한된 분량이다. 이는 유람기가 창작된 공간이 주로 이름난 산(山)·수(水)·해(海)를 대상으로 하여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출한 분량이라 하더라도 관찰자인 송병선의 의미 있는 시선이 담겨 있을뿐더러, 제3) 절에서 취급할 ‘실경 묘사와 산수 품평’에 뒤이은 비중을 차지하고도 있다. 이에 논의의 흐름을 고려하여 불교적 서술단위에 이어서 약간의 지면을 할애하고자 한다.

일단, 전북권과 관련된 4편의 유람기 중에서 맨 먼저 작성된 <지리산북록기>에 수록된 해당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송병선은 <지리산북록기>의 서두에서 남원의 여원치(女院峙)를 넘는 동안에, “왜적을 물리친 명나라 장수[天將] 유정(劉綎, 1558~1619)의 제명(題名)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45)</sup> 유원치의 큰 바위에는 “유정이 두 번 지나갔다.[劉綎復過]”고 쓰인 네 글자가 새겨져 있다. 반면에 송병선은 전북의 유형문화재 제162호로 지정된 여원치 마애불상(磨崖佛像)에 대한 묘사는 생략했다. 한편 송병선은 남원의 고남산(古南山)과 운봉(雲峯)의 화수산(花水山)을 지나면서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1335~1408)와 관련된 역사적 상관물 두 곳을 접한 뒤에, 그 이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덧붙여 둔 대목도 눈에 띈다.

“(고남산) 정상[上]에는 태조단(太祖壇)이 있으니, 일찍이 우리 태조께서 이곳에서 노니셨다고들 한다.”<sup>46)</sup>

“(화수산의) 시내를 따라 3, 4 리(里)를 걸어가니 혈암(血巖)이 보인다. 우리 태조께서 왜적을 가로막다가 팔량치(八良峙)를 넘은 뒤에, 병사를 매복[伏]시켜 기다리시다가, 이곳에서 (왜적을 모두) 초멸(勦滅)시키는 바람에, 바위 위엔 피가 얼룩져 있고, 지금도 새로 (피가) 적셔진 것만 같다.”<sup>47)</sup>

45)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智異山北麓記>, 358쪽, “踰女院峙, 有征倭天將劉綎題名.”

46)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智異山北麓記>, 358쪽, “過古南山, 上有太祖壇 我太祖嘗遊於此云.”

47)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智異山北麓記>, 358쪽, “循溪而行三數里, 得血巖, 我太祖要倭, 踰八良峙, 伏兵以待, 勦滅于此, 石上斑血, 至今若新漬.”

위의 두 인용문은 집안 대대로 고관대작을 하여 조선왕조와 운명을 같이하려 했던 신하의 곧은 의리, 곧 “스스로 교목세신(喬木世臣)의 의리[義]가 있다.”<sup>48)</sup>는 사실을 매우 중시했던 송병선이 태조를 향한 추념이 잘 드러나 있다. 이와 동시에 송병선은 화수산에서 황산대첩비(黃山大捷碑)를 정독하였지만,<sup>49)</sup> 비문에 대한 소감을 남기지는 않았다. 이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비문과 필치로 이뤄진 고창 선운사의 백파비(白坡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sup>50)</sup> 또 훗날인 1898년에도 송병선은 월출산의 미륵암(彌勒庵) 근처에서 도선비(道詵碑)를 “지팡이로 읽어 내린”<sup>51)</sup> 사실만을 언급해 두었다. 대신에 송병선은 하산길에 영암의 구림(鳩林)을 지나면서, “여기가 도선이 나서 자란 곳으로, 촌(村) 동네 하나가 대나무 숲에 감춰져서, 바깥에서 보면,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하다.”며 고승에 대한 큰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sup>52)</sup> 여하간 송병선은 유람 등정에서 특별한 유래가 간직된 단(壇)·바위·비문·인물 따위를 대면하게 되면, 반드시 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기록화는 태도를 견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정황은 변산을 등반하는 도중에 마주친 금암(金巖)이 간직한 역사적 유래와 작명 경위를 밝힌 아래의 글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된다.

“금암을 맞닥뜨려 만나니, 드높고 널리 뒤덮은 것이 천 길이나 된다. 중앙의 구덩이는 굴(窟)인데, 넓이가 다섯 칸살의 집을 지을 만도 하다. 옛날 소정방(蘇定方)이 백제(百濟)를 정벌하기 위해 이곳에 도착해서, 신라(新羅)의 법민왕(法敏王)과 만났던 까닭에, 바위 이름이 이로 말미암게 된 것이다.”<sup>53)</sup>

윗글에는 광대한 금암의 기세와 커다란 굴에 대한 묘사와 함께, 금왕의 ‘금’

48)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0, 「年譜」, <壬午(先生四十七歲)>, 441쪽, “上特諭敦召曰 ... 爾雖林下宿學, 自有喬木世臣之義, 其爲國誠忱。當與在朝者一般。” 이 글은 동궁의 가례(嘉禮) 거행을 위해 고종이 입궐(入闕) 재촉한 특유 중의 일부 내용이다.

49)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智異山北麓記>, 358쪽, “戚叔安時任 ... 亦從到花水山, 讀黃山大捷碑。”

50)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兜率山記>, 361쪽, “復還禪雲, 見白坡碑(秋史文與筆)”

51)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遊月出·天冠山記(戊戌)>, 384쪽, “歷道岬寺。右上彌勒庵 ... 又行數弓許, 有道詵碑, 拄杖讀之。”

52)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遊月出·天冠山記(戊戌)>, 385쪽, “下山過鳩林, 是道詵生長處, 而一村藏於竹林, 自外見之, 若無人居。”

53)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1쪽, “抵遇金巖, 磅礴千仞, 中坎爲窟, 廣可建五架屋, 昔蘇定方伐百濟, 到此, 遇新羅法敏王, 故巖名由是也。”

자가 범민왕을 나타낸 기표(記表)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묵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결과적으로 송병선이 차후인 1900년(65세)에 이르러 “신라 문무왕(文武王) 8년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조(本朝) 철종(哲宗) 계해년[癸亥, 1863]에 이르기까지 도합[合] 1,195년을 총 27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동감강목(東鑑綱目)』을 선보인 일도,<sup>54)</sup> 그가 견지해 왔던 면밀한 관찰력과 기록을 중시하는 태도가 축적되어 역작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송병선은 광주(光州)의 서석산(瑞石山)을 유람한 김에 들른 화순(和順) [동북]의 적벽(赤壁)에서, 지난날에 “대저 이 적벽[壁]은, 땅이 궁벽하고 거친 곳에 소재[在]한 탓에, 아는 자가 없었다.”고 회고한 뒤에, 광양(光陽) 출신의 16세기 문신인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 1483~1536)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또 “김(金) 하서(河西)가 시(詩)로써 찬미[稱美]한 뒤에서야, 마침내 세상에서 유명해졌다.”며 적벽의 역사를 짚어 보인 대목도 눈길을 끈다.<sup>55)</sup> 곧장 이어서 송병선은 적벽의 “명성이 천하[天壤]에 퍼진” 이면의 이치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아래처럼 피력해 두기도 했다.

“다행히도 파공(坡公)[소동파]이 유람[遊]·완상[賞]한 덕분에, 명성이 천하에 (널리) 퍼졌으니, (세상에) 알려짐[顯]과 알려지지 않는 것[晦]에 때가 있음이 산수도 또한 그러하니, 어찌 유독 사람만 그러하겠는가? 이에 술잔을 끌어당겨서 취하고, 돌을 베개 삼아 잠들어, 꿈속에 고결한 선비[高士]와 더불어 노닐었으니, (고사란 꿈) 파공이 아 니겠는가?”<sup>56)</sup>

윗글에는 송병선이 견지한 ‘때의 철학’인 현회관(顯晦觀)이 잘 드러나 있다. 물론 현회 관념이 송병선만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그가 때의 철학에 입각해서 자연계와 인간사를 관통하는 역사 인문학의 지평에서 적벽의 부각을 거론한

54) 宋秉璫,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庚子(先生六十五歲)>, 459쪽, “六月, 東鑑綱目成 ... 起自 新羅文武王八年己巳, 至于本朝哲宗癸亥, 合一千一百九十五年總二十七卷.”

55)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赤壁記>, 360쪽, “大抵是壁, 地在僻荒, 人跡罕至, 未有知者, 崔新齋 山斗 始得之, 金河西以詩稱美, 然後遂名於世.” 적벽은 전남 화순군 이서면 장랑천 일대의 절벽을 가리킨다.

56)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赤壁記>, 360쪽, “幸得坡公遊賞, 聲播天壤, 則顯晦有時, 山水亦然, 奚獨人乎哉, 乃引觴而醉, 枕石而眠, 夢與高士遊, 豈非坡公歟.” 파공(坡公)이란 파선(坡仙)으로도 칭해졌던 <적벽부(赤壁賦)>의 저자인 소동파(蘇東坡)를 가리키나, 여기서는 최산두와 김인후를 염두에 둔 표현임. 송병선이 적벽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소동파의 <전·후적벽부> 2곡을 낭송하였다.(360쪽); “放舟中流, 遂誦坡仙二賦.”



사실이 무척 흥미롭게 여겨진다. 한편 ‘파공(坡公)’으로 비유된 한 사람인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문집에는 “호월산(皓月山) 앞을 엿보노라니, 문득 적벽에서 노닐던 생각이 난다.”는 시구가 발견된다.<sup>57)</sup> 이는 앞서 송병선이 ‘김 하서’ 운운한 대목의 실상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송병선은 <백암산기>를 통해서 “하서 선생의 사당을 참배[謁]하고” 인조(仁祖)가 선사한 묵죽화(墨竹畵)를 감상한 사실을 기록해 두기도 했다.<sup>58)</sup> 또한 장성의 하사(下沙)를 지나면서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을 만나 정중하게 배례를 취한 뒤에, 노사학과를 위해 헌신한 신희(莘湖) 김녹휴(金祿休, 1827~1899)를 예방한 자리에서 백암산의 무진장한 미덕을 경칭한 바가 있다.<sup>59)</sup> 이처럼 김인후의 사당을 배알하고 기정진과 김녹휴를 연이어 만난 처사란, 송병선이 임한 산수유람이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런가 하면 송병선은 적벽에서 “물 덮은 산에 있는 물염정(勿染亭)”과 함께, “깎아 지른 듯한 언덕에 자리한 창랑정(滄浪亭)의 옛터”에도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sup>60)</sup> 이처럼 유교적 건축 문화의 일환인 누정(樓亭) 또한 부수적인 관찰 포인트로 설정되었지만, 아쉽게도 전북권의 누각·정자는 제외된 상태다. 물론 <도술산기>에는 백부(伯父)인 송달수의 글씨가 액호(額號)에 게시된 만산(萬山) 경석정(竟夕亭)을 소개하고 있다.<sup>61)</sup> 또한 송병선은 <덕유산기>를 통해서 경상우도의 안음현(安陰縣)의 “바위 돌이 뒤섞여 늘어섰고, 깊은 물결이 감도는” 곳에 축조한 용암정(龍巖亭)과 함께,<sup>62)</sup> 요수정(樂水亭)과 관수루(觀水樓)도 소개하였다.<sup>63)</sup> 그런데 호남의 유람이 김인후의 도학(道學)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전자인 경석정의 경우, 전남 장성군 황룡면의 난산(卵山)에 연고를 둔 정자이기에 전북과는 무관하다. 결과적으로 송병선이 찬한 유기 4편에는 전북 지역에 소재한 누정 묘사가 누락된 특징이 확인되는 셈이다. 또한 도교(道教)나 무속 신앙과 관련된 내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57) 金麟厚, 『河西全集』 卷2(한국문집총간 33), 「五言古詩」, <詠李上舍鶴四美亭>, 한국고전번역원, 1989, 33쪽, “向晚理煙艇 ... 皓月山前窺, 翻思赤壁遊 ... 蓑笠君知誰(右漁).” 김인후는 칠언고시인 <讀東坡赤壁賦>를 창작하기도 했다.(65쪽)

58)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白巖山記>, 360쪽, “歷謁河西先生廟, 奉玩御畵墨竹.”

59)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白巖山記>, 360쪽, “過下沙. 請拜蘆沙奇公 正鎭 a329\_361b退. 西訪金祿休. 得聞茲山甚悉.”

60)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赤壁記>, 360쪽, “轉向勿染亭, 有山冒水 ... 斷岸有滄浪亭址.”

61)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兜率山記>, 361쪽, “過萬山 ... 下竟夕亭, 額揭伯父筆.”

62)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德裕山記>, 364쪽, “歷登龍巖亭, 巖石錯列 ... 幽爽可愛.”

63)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德裕山記>, 364쪽, “臺名素稱秋送 ... 東西有樂水亭·觀水樓, 皆臨流敞豁.”

한편 이번 2)절의 논의와 관련해서 송병선이 1869년 9월에 원세범(元世范)에게 전한 아래의 편지글에는, 그의 유람이 추수한 또 다른 이면을 시사해 주고 있어 크게 눈길을 끌게 한다.

“1898년 늦봄에 (임피에) 성포[省柳]를 가는 걸음으로 인하여, 삼종제(三從弟)인 위옥(衛玉)[자] 병원(秉瑗)과 명중(鳴仲) 최봉서(蔡鳳瑞)·치장(稹章) 안성환(安成煥)·자상(子商) 박기진(朴起震)·윤범(允範) 김재홍(金在洪)·성재(聲哉) 김시중(金始中)·형원(馨遠) 여조연(呂肇淵) 등의 제군(諸君)과 더불어 영주(瀛洲)의 무산(戊山)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니, 윤(閏) 3월 6일(己未)이다. 장차 출발하려 함에 공범(公範) 오석렬(吳錫烈)과 내옥(乃玉) 이경순(李敬純)·익중(翼仲) 송홍(宋鴻) 등이 또한 뒤따랐다.”<sup>64)</sup>

윗글에는 송병선의 유람 시에, 그와 여정(旅程)에 임한 문인(門人) 10여 명의 명단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다. 기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임한 <유황산급제 명승기>(31세)를 제외한 여타의 유기에는 일정별로 술한 문인들이 동참한 상황이 매번 포착된다. 물론 <변산기>에는 그곳 부안의 주인(主人)으로 내세운 윤경민(尹致敏)과 고태진(高台鎭)·정형(鄭兄)<sup>65)</sup> 등을 제외한 여타 문인들을 “(나를) 따르는 자[從者]”<sup>66)</sup>라고만 지칭한 까닭에, 유람에 동참한 명단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된다. 반면에 월출산을 등반할 때는 송병선 일행이 영암군의 서호(西湖)에 소재한 삼벽정(三碧亭)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안택환(安澤煥)을 비롯한 3명의 문인이 추가로 합세한 사실도 기록해 두었다.<sup>67)</sup> 그리하여 송병선을 포함한 14인은 강진(康津)의 만덕산(萬德山) 자락에 소재한 백련사(白蓮寺)에서 1박을 하면서, 달빛도 정히 고운 그 날밤에 “일행 제군과 더불어, 각기 경전(經傳) 1장(章)을 낭송하였다.”고 기록해 두었다.<sup>68)</sup> 이 같은

64) 宋秉璫, 『淵齋集』 卷22, 「雜著」, <遊月出·天冠山記(戊戌)>, 384쪽, “... 故歲戊戌暮春, 乃因省柳之行, 與三從弟衛玉秉瑗, 及蔡鳴仲鳳瑞·安稹章成煥·朴子商起震·金允範在洪·金聲哉始中·呂馨遠肇淵 諸君, 約會於瀛洲之戊山, 閏三月六日己未, 將發, 吳公範錫烈·李乃玉敬純·宋翼仲鴻 亦從.”

65)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1쪽, “先訪尹致敏·高台鎭于山下, 鄭兄曾與有約, 欲使爲主人也.”

66)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2쪽, “從者咸叫奇壯, 余獨啞然曰 ...”

67) 宋秉璫, 『淵齋集』 卷22, 「雜著」, <遊月出·天冠山記(戊戌)>, 385쪽, “逶迤西湖, 滯雨於玄氏三碧亭, 安汝恩澤煥·尹亨三滋鉉·安季玉暢煥, 先後追到.”

68) 宋秉璫, 『淵齋集』 卷22, 「雜著」, <遊月出·天冠山記(戊戌)>, 385쪽, “發到萬德山下, 訪

정황은 송병선의 유람이 연재학과라는 학단(學團)의 운영 방식과도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 같은 분석은 다음 날에 송병선 일행이 “구강포(九江浦)를 건너서 천관산으로 향할 무렵에,” 술한 문하생들이 운집한 장면을 포착해 둔 아래의 글을 통해서도 판단의 적실성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

“모인 선비들이 심히 많은 무리를 이뤄, 길고 너른 소매와 넓은 띠가 도로에 죽 이어졌으니, 또한 죽히 무너진 풍속에 경계[警]가 될 만도 하다!”<sup>69)</sup>

한편 송병선은 1899년(64세) 늦봄에는 안음현의 산수를 유람한 후에, 귀도에 들른 아림(娥林)의 포충사(褒忠祠)에서 문인 이영조(李祚永) 등과 함께, “예를 익히고 학문을 강론한” 정황과 더불어,<sup>70)</sup> 김천(金泉)의 방초정(芳草亭)에서 문인들과 강학과 토론을 개최한 아래의 인용문도 유람과 연계된 연재학단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가옥(佳玉) 이현기(李鉉琪)와 대경(大卿) 정석채(鄭奭采) 또한 방초정의 동로재(東魯齋)에서 강좌(講座)를 개설해서 『대학』과 『소학』을 강론한 뒤에, 애경(愛敬)과 수신[修]·제가[齊]의 도리를 토론하였으니, 대개 이번 행정[行]은 산수를 마음껏 즐기고, 경문의 취지[經旨]를 (서로) 담론[談說]하였으니, 가위 두 가지를 얻었다[兩得]고 할 만하다.”<sup>71)</sup>

이른바 ‘양득(兩得)’을 만끽한 사실을 밝힌 위의 인용문은 앞서 강진의 백련사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면서 “각기 경전(經傳) 1장(章)을 낭송한” 처사와 함께, 일군의 문인들이 동참한 송병선의 유람에 내재된 매우 복합적인 양상의 일단

白蓮寺 ... 是夜月色正好，與一行諸君，各誦經傳一章。”

69) 宋秉璿, 『淵齋集』 卷22, 「雜著」, <遊月出·天冠山記(戊戌)>, 385쪽, “渡九江浦, 轉向天冠山, 會士甚衆, 廣袖博帶, 道路連續, 亦足爲頹俗之警矣.”

70) 宋秉璿, 『淵齋集』 卷22, 「雜著」, <遊安陰山水記>, 387쪽, “歸路迤向娥林之褒忠祠, 曾與李生允卿 祚永 有約也, 習禮講學, 足以勵頹風滄俗.”

71) 宋秉璿, 『淵齋集』 卷22, 「雜著」, <遊安陰山水記>, 387쪽, “李佳玉鉉琪·鄭大卿奭采, 亦設講座於芳草亭東魯齋, 講大小學, 討論愛敬修齊之道, 蓋此行酣飫山水, 談說經旨, 可謂兩得矣.” 2층으로 이뤄진 방초정은 온돌방을 갖춘 시설로도 유명하다.

을 넘지시 엿보게 해준다. 그런 점에서 22편 유람기에 기술된 유교적 서술단 위란, 명산대천에서 마주친 역사적 유적과 자연 조형물 따위에 뒤지지 않는 기록적 가치를 발휘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 3) 실경 묘사와 산수 품평

반면에 송병선이 찬한 <지리산북록기>·<도솔산기>·<변산기>·<덕유산기>에는 ‘진화(眞畵)’<sup>72)</sup>라는 표현에 어울리게 절경(絶景)의 실경 묘사가 매우 탁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산수의 미덕에 대한 다양한 품평(品評)을 제시하였음이 주목된다. 그런데 실경산수의 대상이 상당히 폭넓기에, 개별 유람기에 수록된 몇몇을 선별해서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그런 과정을 경유하면서 산수에 대한 품평과 함께, 그 안에 깃든 의미를 아울러 반추하도록 하겠다.

먼저, 송병선이 1869년 2월에 작성한 <지리산북록기>에 수록된 실경 묘사의 대상에는 앞에서 소개한 영대(靈臺) 외에도, 실상사 뒤편의 정상[峯]에서 “시험 삼아 바라본 한 산의 면목(面目)이 열에 일곱 여덟은 다 보인다.”<sup>73)</sup>고 소개한 아래의 실경 묘사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마치 병풍 같고 군영[衛]과도 같은 것이, 뽀뽀이 늘어서 있는 모습, 흡사 천 명의 관리가 신선처럼 안고 있는 듯하고, 만 명의 기병이 구름처럼 모여 진을 치고 있는 것만 같다. 단아·중후하고 광대·충만하며, 웅장하고 깊으면서 그윽한 모습이란, 단정하고 진중하여 유덕(有德)한 사람의 기상(氣象)이 있다. 또 청학봉(靑鶴峰)과 일월대(日月臺)가 구름 낀 하늘 사이로 높이 솟구쳐서, 위엄있고 엄숙하게 두 손을 맞잡고 나란히 서 있다.

그 아래에 10여 주(州)를 감싸고 벌여놓으며 감아 엮어서, 알록달록하게 짙은 자수나 벌처럼 늘어놓은 것은, 모두 그 자손(子孫)들이다. 때마침 흰 구름이 물 끓듯 샘솟아 오르니, 온 골짜기가 모두 편편해지고, 푸른 봉우리 천 점이 향기롭고 자욱한 구름 속에서 희미한 이슬로 화하

72)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遊黃山及諸名勝記>, 317쪽, “性潭詩野色三衢闊, 湖光一帶清者, 眞畵得也.” 송환기(宋煥箕, 1728~1807)의 이 시는 『性潭集』 卷2, 『詩』, 36쪽, <丙寅仲春, 與扶江若而士友, 會于滄院, 祇謁祠宇, 仍乘流而下泊汪津, 訪夢賁亭主人趙行源> 중의 두 구에 해당한다.

73)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智異山北麓記>, 358쪽, “從寺後, 登峯試望, 一山面目, 可得十之七八.”

니, 정히 마치 푸른 바다의 만 이랑의 큰 물결이 일렁거려도 놀라지 않는 듯하고, 크고 작은 섬들이 가로로 진열한 것만 같다.”<sup>74)</sup>

편의상 두 다락으로 나뉘서 소개한 윗글에는, 남원의 지리산 정상에 올라 조망한 가깝고 먼 거리의 정경이 다양한 수식어를 통해서 한 폭의 실경산수화처럼 절묘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송병선은 지리산을 “단정하고 진중하여 유덕(有德)한 사람의 기상(氣象)이 있다.”고 품평한 것은, 앞의 <적벽기>와 마찬가지로 역사 인문학의 시각에서 산수를 진단한 것이다. 이렇듯 송병선의 산수 묘사는 사실주의적 요소와 역사 인문학적 시각이 혼재해 있으며, 여타의 유람기에서도 똑같은 양상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송병선이 고창의 상도술(上兜率)에 올라 접한 상·중·하 세 층으로 이뤄진 대(臺)<sup>75)</sup> 가운데서 상층(上層)의 장관을 묘사한 <도술산기>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상층은 극히 편편하고 넓어서, 마치 커다란 경연석[筵席]을 펼쳐 놓은 듯하다. 또 여타의 기이한 모양의 봉우리는 가파른 낭떠러지로, 빙 둘러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깃발을 벌여놓은 것 같다. 경계(境界)가 엄숙하고 무시무시하여 (절로) 뉘[魄]이 움찔해진다. 한 산의 진면목[面目]과 정신(精神)이 죄다 이곳에 모여진 것이, 참으로 기이하고 절묘하니, 겪어 지내 온 것에 비할 바가 없다.”<sup>76)</sup>

위의 인용문 또한 상도술 상대(上臺)의 실경에 대한 비유적 묘사와 함께, 산을 사람의 ‘면목·정신’과 유비시킴으로써, 인간학의 지평으로 유인하는 서술 기법이 재현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송병선은 윗글에 곧장 이어서 “흔연히 마음이 흐뭇해져, 감홍로(甘紅露)를 가득 잔에 따라 마셨다.”는 사실도 밝혀 두었다.<sup>77)</sup> 이 대목은 앞서 적벽에서 “이에 술잔을 끌어당겨서 취하고, 돌을 베개 삼아 잠들어” 운운한 장면과 함께, 송병선이 유람 도중에 음주를 매우 즐겼던

74)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智異山北麓記>, 358쪽, “若屏若衛, 簇立環列, 如千官仙擁, 萬騎雲屯, 端厚磅礴, 雄深幽遠, 凝然有有德人氣象, 青鶴日月, 高出雲霄, 莊嚴拱立, 其下包張羅絡於十餘州, 繡錯而星列者, 皆其子孫也, 時白雲騰湧, 萬壑皆平, 碧峯千點, 微露於杳靄之中, 正如滄海萬頃, 波濤不驚, 島嶼橫陳矣.”

75)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兜率山記>, 361쪽, “過此卽爲上兜率, 蓋在絕壁之巔, 作臺三層. 而下層構小菴 ... 餘層皆石臺.”

76)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兜率山記>, 361쪽, “上層極平廣, 如張大筵席, 又他奇峯峭壁, 環立若旗張, 境界嚴肅, 森然魄動, 一山面目精神, 盡萃于此, 信奇絕, 所歷無比.”

77)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兜率山記>, 361쪽, “欣然會心, 滿酌甘紅露,”

정황을 방증해 준다.

기실 송병선은 광주의 서석산을 등반하면서도 “술을 청하여 술잔에 가득 따라 마시고는, 달음박질하듯 비로(毗盧)·천왕(天王) 두 봉우리에 올랐다.”고 밝힌 바가 있다.<sup>78)</sup> 비로봉과 천왕봉은 무등산의 양대 최고봉이다. 송병선은 <변산기>를 통해서도 “안온하고 극히 기이하여, 더욱 범상한 경계[凡境]가 아닌” 월명암(月明菴)에 들기 직전에, “그늘진 나무 아래 앉아 쉬면서, 술을 돌려가면서 마셨다.”고 회고한 바가 있다.<sup>79)</sup> 심지어 장성의 백련암(白蓮菴)에서는 암자의 비구니가 제공한 술을 마신 소감을 아래처럼 토로해 두기도 하였다.

“(백암산의) 장춘동(長春洞)에 들어, 백련암에서 쉬고 있는데, 연로한 비구니[老尼]가 오선주(五仙酒)를 내어 권하니, 매우 상쾌한 기분이 살 것까지 엄습하여, (저절로) 번뇌(煩惱)가 몸에서 사라져 없어진다.”<sup>80)</sup>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송병선은 『유호남기』 9편에서 음주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작품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애주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해 보였다. 그런 점에서 『유호남기』는 송병선이 임한 유람이 풍류(風流)의 만끽을 통한 심리적 긴장의 해소라는 부수적 목적을 겸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송병선은 <덕유산기>를 빌려서 이 산의 최정상봉인 향적봉(香積峯)에 오른 뒤에, 자신이 앞서 등반한 여러 국내 명산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조망한 소감을 밝혀 두는 안목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에 향적봉 상봉(上峯)에 다다르니, 뜬구름이 청산[靑翠]에 겹쳐 쌓여, 만 겹으로 겹치고 천 겹으로 층을 이뤘으니, 속리(俗離)·계룡산(雞龍山)의 높고 가파른 형세를 감쇄[殺]시키나, 산언덕[丘隴]은 비슷하다. (또) 지리산[智異]과 가야산[伽倻]의 그 기이하게 높은 형상을 거두어들었으면서도, 평평한 표면은 같아 보인다. 그 나머지 대둔산[大屯]과 천마산[天馬] 같은 여러 산은, 감히 조금도 겨룰 수 없으니, 마치 비유(卑幼)를 어루만지는 것만 같다. 멀리 서해(西海)를 어습푸

78)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瑞石山記>, 359쪽, “呼酒滿酌, 走登毗盧·天王, 此二峯, 爲一山最高處.”

79)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2쪽, “坐憩樹陰, 巡酒止渴 ... 至月明菴, 安穩奇絕, 益非凡境.”

80) 宋秉璫,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0쪽, “入長春洞, 憩白蓮菴, 老尼出饋五仙酒, 爽氣侵膚, 煩惱祛體.”

래하게 두르고 있어, 흡사 오씨 문중[吳門]의 누인 비단[匹練] 한 필을 걸어 둔 듯하니, 마음과 눈이 쾌활(快豁)해져, 사람으로 하여금 홀쩍 (속세를) 떠나서 우주의 텅 빈 공중에 걸터앉고 싶은 뜻을 품게 한다.”<sup>81)</sup>

위의 인용문에는 온통 부운(浮雲)으로 가득한 향적봉의 주변 정경과 기고(奇高)한 산세, 멀리 서해가 희미하게 바라보이는 원경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덕유산의 구룡(丘龍)·평면(平面) 따위를 속리·계룡·지리·가야·대둔·천마산과 비교의 관점에서 논하면서, 쾌활한 심목(心目)에 힘입어 물외(物外)의 세계를 소요하고픈 송병선의 심경이 아우러져 드러나 있다. 다만 완주(完州)와 논산(論山) 등지의 경계에 걸쳐 있는 대둔산을 대상으로 한 유람기를 남기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16세기 안음현 출신의 관인·유자인 갈천(葛川) 임훈(林薰, 1500~1584)이 찬한 <등덕유산향적봉기(登德裕山香積峯記)><sup>82)</sup>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략한 내용 구성을 보이고 있다. 임훈의 <등덕유산향적봉기>는 덕유산에 산재한 불교 유적과 식생(植生) 분포 및 지명 유래와 지리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후대 문인들에게 덕유산과 관련하여 긴요한 정보를 수록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sup>83)</sup>

한편 송병선은 설천(雪川)에서 백련암(白蓮菴)으로 이어지는 등정에서 계곡물이 풍부한 덕유산 골짜기의 물흐름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 산의 특징적인 면모에 대한 품평을 제시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대개 설천에서 60~70리를 걷는 동안에, 계속 샘물이 흐르는 소리의 안[中]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높이 소용돌이치는 여울이 되고 굽은 물굽이[灣]가 되며, 폭포수를 뿜어내기도 하는 것이, 하나나 둘로 셀 수가 없어서, 뜻과 생각이 시원하고 상쾌해지니, 인간 세상[人境]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덕유 일산(一山)은 순토(純土)로

81)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德裕山記>, 364쪽, “乃抵香積峯 上峯, 浮雲積翠, 萬壘千重, 俗離·雞龍, 殺其峭峻之勢, 而丘隴如也, 智異·伽倻斂其奇高之形, 而平面如也, 其餘大芑天馬諸山, 不敢小抗, 若撫卑幼, 西海蒼然遙帶, 如掛吳門匹練, 心目快豁, 使人飄然有出宇宙跨虛空之意.” 비유(卑幼)는 항렬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한다. 오문필련(吳門匹練)의 전거는 미상(未嘗)임.

82) 林薰, 『葛川集』 卷3(한국문집총간 28), 「文」, <登德裕山香積峯記>, 한국고전번역원, 1988, 498~502쪽, “德裕, 吾鄉之鎮山, 而吾家又於其下 ... 書于葛溪自怡堂.”

83) 유정열, 「갈천 임훈의 <등덕유산향적봉기> 연구 -산지적(山誌)의 성격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60,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21, 49쪽.

바위[石]가 적은 탓에, 특별히 기절(奇絶)한 빼어남이 없다. 단, 중후[厚]·장엄[莊]·단정[端]·엄숙[嚴]하여, 듬직하니 덕(德)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산에 계수나무숲이 이뤄지게 하였으니, (계수나무 가지들) 연줄 삼아 오르며 노래하면서, 의당 이곳에 도착[訪落]하게 된 것이다. 백련암에 투숙했다.”<sup>84)</sup>

송병선은 각양각색의 계곡물이 선사하는 삼상(颯爽)한 정취가 흥진 세상과는 판이한 납량(納凉)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찬사에 뒤이어서, “순토(純土)로 바위[石]가 적은” 덕유산의 특성상 기이한 절경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는 “흙이 많고 바위가 적으며, 계곡물 또한 얇은 탓에, 빼어난 물의 발[簾]인 폭포가 없는 것이 유감이니, 족히 이 산의 애석함이 된다.”고 평한 두류산(頭流山)<sup>85)</sup>과 비교의 관점에서 음미할 만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덕유산의 경우 비록 빼어난 절경은 없지만, 후장(厚莊)·단엄(端嚴)한 기상으로 인하여 “덕(德)이 있는” 명산임을 보증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덕유산의 미덕을 논평한 이 대목은 “단정하고 중후하며 침중[凝重]한 모습이 유덕(有德)한 사람의 기상이 있으니, 가히 지리산[智異]과 백중(伯仲)을 논할 만하다.”고 평한 태백산(太白山)<sup>86)</sup>과 닮아있다는 점을 부기해 둔다.

#### 4) <변산기(邊山記)>의 경우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송병선은 『유호남기』를 통해서 명승의 전경을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묘사한 뒤에, 해당 산수를 비교의 관점에서 품평을 내리는 일관된 서술 체제를 적용한 사실이 거듭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변산기>의 경우, 지적인 사항들을 두루 갖춘 유기이면서, 동봉(東峯) 권극립(權克立, 1558~1611)과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1564~1635)가 남긴 기록을 미리 열람했다는 점에서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일단, 송병선이 변산의 특

84)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德裕山記>, 363쪽, “蓋自雪川, 行六七十里, 不離泉聲之中, 爲高灘, 爲曲灣, 爲噴瀑者, 不可一二數, 意想蕭爽, 與人境隔異, 然德裕一山, 純土少石, 別無奇絶之勝, 但厚莊端嚴, 凝然若有德, 使山有叢桂, 則攀援之詠, 當訪落於此矣, 投宿白蓮菴.”

85)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頭流山記>, 373쪽, “多土少石, 澗流亦淺, 恨無水簾瀑布之勝, 足爲此山惜也.” 물의 발이라는 뜻인 수렴(水簾)은 폭포를 아름답게 표현한 단어다.

86)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遊嶠南記·自奉化入太白山記>, 379쪽, “繡錯而星列, 其端厚凝重, 有有德人氣像, 可與智異論其伯仲.”



정을 개괄하면서 두 사람의 유람 기록을 소개한 <변산기>의 서두 부분을 살펴 보기로 한다.

“변산(邊山)은 해악(海嶽)으로, 나라 안에서 이름이 나서, 세상에서 소봉래(小蓬萊)라 일컫는다. 동봉(東峯)과 월사(月沙) 모두 금강산과 지리산으로, 갑을(甲乙)을 논했다.”<sup>87)</sup>

달리 송병선은 변산을 “웅장하게 두른 해굴(海窟)”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는 윗글의 ‘해악(海嶽)’이라는 조어와 함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半島)임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송병선은 <서유기>와 <동유기>를 찬하는 과정에서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과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 및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의 유람기를 참조하였다. 그런데 「유호남기」에서 전인의 유기를 미리 열람한 사례는 <변산기>가 유일하다. 이는 송병선이 변산 유람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실제 송병선은 “일찍이 나는 (눈으로) 보기를 원했는데, 이 해에 남쪽을 유람하게 되었으니, 장차 이 산의 빼어남을 탐구[尋]하고자 한다.”는 말로써,<sup>88)</sup> 1869년에 임한 변산 등반에 큰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변산에 도착한 송병선은 주요 사찰·암자와 자연 조형물, 그리고 눈 앞에 펼쳐진 바다의 풍경을 유심히 관찰하고 감탄을 연발하게 된다. 특히 송병선은 <변산기>를 통해서 세칭 ‘직소폭포’로 일컫는 직소(直沼)와 함께, 변산의 최고봉인 월정대(月頂臺)를 묘사하기 위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점이 눈길을 끈다. 먼저, 특이하게도 상담(上潭)과 하담(下潭)으로 이뤄진 직소에 대한 <변산기>의 해당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직소에 다다르니, 산등성이의 등골뼈는 오목한 요(凹) 자(字)를 이뤘고, 거대한 바위가 가로로 누워서, 깎아지른 듯이 위아래를 두 동강을 내었는데, (상·하에) 모두 깊은 소[潭]가 있다. 상담(上潭)의 물은 계곡물을 받아서, 벽(壁)에 구멍을 뚫어 밖으로 내쫓고 있다. (상담을) 헤아려 보니, 높이가 수십 길에 되직한데, 그 소리가 천둥이 치는

87)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1쪽, “邊山, 海嶽也, 名於國中, 世稱小蓬萊, 東峯月沙, 皆以金剛智異, 論甲乙.” ‘소봉래’라는 표현은 내소사의 부속 건물인 봉래루(蓬萊樓)의 작명 경위를 짐작케 해준다.

88)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1쪽, “余嘗願見, 是歲始南遊, 將尋茲山之勝.”

복을 닦았고, 날아올라 흩어지는 물거품이 (하얀) 가루처럼 내뿜어져, 사람들의 옷과 수건[巾]을 흥건하게 적신다. 하담(下潭)은 크기가 흡사 네모진 연못과도 같은데, 무척 검푸르고 또 깊어서, (나를) 따라다니는 이들이 모두 기관[奇]·장관[壯]이라며 부르짖는다.

(이에) 나는 홀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죽히 (우리의 유람을) 보상하겠는가? 구룡(九龍)·박연(朴淵) 폭포와 비교하면, 마치 큰 강과 바다와 길바닥에 핀 물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sup>89)</sup>

편의상 두 단락으로 나누어 소개한 위의 인용문은 은유나 비유적 수사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극히 사실주의적인 실경 묘사, 곧 “또한 있는 그대로의 그림[眞畫]에서 나온 실제의 경치[實景]가 아니겠는가?”라는 말로써,<sup>90)</sup> 고려의 문신이자 시인인 김황원(金黃元, 1045~1117)의 작품을 평한 송병선의 언술을 연상케 해준다. 이와 동시에 송병선은 직소를 보기 드문 기이한 광경이자 장관(壯觀)으로 극찬한 문하생들의 감탄을 듣고서는, 금강산의 구룡폭포와 송도(松都)의 박연폭포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송병선은 1868년 3월에 “구룡폭포[九淵]를 한 번 눈으로 본” 뒤에, 금강산 내의 비봉(飛鳳)·옥류(玉流) 두 폭포에 대해서도 하해(河海)와 길바닥에 고인 물로 품평한 사실이 있다.<sup>91)</sup> 그러나 사람의 개성도 제각각 천태만상이듯이, 기관(奇觀)이나 장관·대관 또한 의미를 부여하는 자의 고유한 몫이 아니겠는가?

한편 월명암에서 1리 즈음 떨어진 최상봉인 월정대(月頂臺)<sup>92)</sup>를 등정(登頂)한 후에, 송병선이 묘사한 아래 내용도 「호남유기」 전체를 통해서도 매우 돋보이는 명문으로 사료된다.

“두 바위가 (서로) 마주 대(對)하여 서서 있는데, 우뚝한 모양이 마

89)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2쪽, “乃抵直沼, 岡脊成凹, 巨石橫臥, 陡斷上下, 皆有潭, 上潭水受澗流, 穿壁瀉出, 測之, 高可數十仞, 聲類雷鼓, 飛沫噴薄, 灑人衣巾, 下潭大如方塘, 黝碧且深, 從者咸叫奇壯, 余獨啞然曰, 此何足以償, 較諸九龍朴淵, 如河海之於行潦矣.”

90) 宋秉璿, 『淵齋集』 卷19, 「雜著」, <西遊記·自長壽山歷黃州至平壤記>, 325쪽, “高麗金黃元詩, 長城一面溶溶水, 岡脊成凹大野東頭點點山, 亦未眞畫出實景也.” 김황원의 이 시는 평양의 대동강 변의 연광정(練光亭) 주변을 읊은 것이다.

91) 宋秉璿, 『淵齋集』 卷20, 「雜著」, <東遊記>, 343쪽, “若之簾瀑, 玉流之臥瀑, 信皆奇壯, 而一見九淵, 皆爲河海之行潦.”

92)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2쪽, “至月明菴 ... 又上一里, 抵月頂臺, 是爲此山上峯.”

치 빨과 같다. 머리를 숙여 바라보니 은빛 바다가 하늘로 치솟고, 바다 위의 못 산들과 바다 가운데의 여러 섬들이 구름 끝에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데, 낙조(落照)가 쏘아대니, 푸른 파가 눈부시고 찬란하게 빛나는 듯하다. 이를 내려다보노라니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높이 날아서 오르는 듯하여, 마치 우주의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만 같다. 대개 이 산은 웅장하게 두른 해굴(海窟)로, 두루 1백여 리를 휘돌아서, 마치 머리를 숙였으면서도 일어선 듯하고, 마치 말이 달리면서도 멈춰 선 것 같으며, 그윽하고 깊으며 높고 심원하다. 그러나 다만 밝고 빼어나면서 아름답고 기이한 자태가 조금 덜하기에, 금강산과 더불어 논하거나, 또 영주(瀛洲)[제주]의 세칭 한라산[漢拏]과 견주어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sup>93)</sup>

송병선이 월정대의 정상에 올라 주변 전경과 안전에 펼쳐진 바다 풍경을 실감나게 묘사한 윗글은 <변산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에 해당한다. 또한 위의 인용문 말미에서 ‘밝고 빼어나[明秀]·아름답고 기이함[瑰奇]’이라는 두 가지 잣대로 금강산과 한라산의 절경과 차별화를 시도한 점은, 앞서 소개한 직소 품평과 유사한 맥락이다. 이 점은 송병선 스스로가 ‘독창적 안목(創目)’<sup>94)</sup>으로 칭한 감식안이 유다른 경지에 올랐음을 시사해 준다.

위의 인용문에 이어서 송병선은 “그럼에도 동봉(東峯)은 특별히 이 산으로 금강·한라산에 대적[當]시킨 것은, 지나친 듯하다.”는 소견과 더불어,<sup>95)</sup> 또 “월사(月沙)는 해선대(海仙臺)를 크게 칭찬하여 이르기를, ‘비록 금강산에 있더라도, (천하의) 제일일 것이다.’”<sup>96)</sup>고 품평한 대목을 나란히 소개해 두었다. 이 같은 송병선의 평가성 언술은 권극립이 내린 품평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나, 해선대를 둘러싼 이정귀의 평에는 공감을 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정귀

93)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2쪽, “兩石對立, 屹然如角, 俯視銀海撲天, 海上羣山, 海中諸島, 出沒雲際, 落照射之, 青蔥眩耀, 望之使人神思飛越, 若出宇宙外, 蓋是山雄蟠海窟, 周遭百餘里, 若頰而起, 若驚而止, 幽深高遠, 而但少明秀瑰奇之態, 不可與金剛論, 且瀛洲世稱漢拏.” 月沙盛言海仙臺曰, 雖在金剛, 爲第一.”

94) 宋秉璿, 『淵齋集』 卷19, 「雜著」, <西遊記·自松都歷天磨, 至聖居山記>, 329쪽, “然猶爲生平所創目, 不知金剛九龍瀑 ...” 그런데 이 문장은 金昌協, 『農巖集』 卷23(한국문집총간 162), 「記」, <游松京記>, 한국고전번역원, 1996, 165쪽에서도 발견된다. “... 相與縱觀劇論, 以爲生平所創目, 不知廬山如何耳已. 이는 송병선이 김창협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을 방증해 준다.

95)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2쪽, “... 而東峯特以茲山當之者, 似過矣.”

96)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2쪽, “月沙盛言海仙臺曰, 雖在金剛, 爲第一.”

의 『월사집』에는 1598년(선조 31) 4월에 변산을 거쳐 간 시가 있을뿐더러,<sup>97)</sup> 이곳 월명사(月明寺)의 두 승려인 인오(印悟)·연(連)과의 친분을 엿보게 해주는 두어 편의 시도 확인된다.<sup>98)</sup> 차제에 송병선이 인용한 이정귀의 문집인 『월사집』의 해당 내용을 마저 소개하기로 한다.

“가령 이른바 해선대는, 비록 금강산에 있더라도 의당 제일일 것이  
니, 거의 불정대(佛頂臺)와 서로 유사하면서도, 그보다는 훨씬 더 낮지  
만, 땅이 후미지고 길이 험한 탓에, 구경해 본 사람이 드물다.”<sup>99)</sup>

송병선이 윗글에서 이정귀가 언급한 불정대를 두고, “멀찍이서 불정대를 지나가면서,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널리 물었으니,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춰 둔 탓에, 속인(俗人)이 구경함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말로써,<sup>100)</sup> 몹시 후미진 공간에 터하여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까닭에, 친히 유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 두었다. 그런가 하면 송병선은 <변산가>와 병행해서 <변산>이라는 제하의 칠언절구 한 수(首)를 검하여 창작한 점도 눈길을 끈다.

“봉래산이 기이하게 튀어나왔으나 해심(海心)은 드넓고  
용이 머물다 날아올라 빙 두른 형세가 더욱 웅장해졌으니  
초연히 먼 곳의 영주(瀛洲)를 깨닫지도 못하다가  
월정대 주변에서 바람을 부리고 싶어라!”<sup>101)</sup>

송병선은 위의 시를 빌려서 변산의 지형학적 특성을 축약해서 서술함과 동

97) 李廷龜, 『月沙集 I』 卷3(한국문집총간 69), 『戊戌朝天錄(下)』, <次出關韻>, 한국고전번역원, 1991, 272쪽, “路出黃榆馬首東 ... 四月邊山尙北風.” 이정귀는 1598년[戊戌]에 진주부사(陳奏副使)로 명나라에 사행(使行)을 다녀왔다.

98) 李廷龜, 『月沙集 I』 卷16, 『倦應錄(上)』, <邊山月明寺僧印悟, 送沙彌寄問, 次其軸中韻却寄(三首)[悟方在智異山盤若峯]>, 362쪽, “... 踏遍名山臥一庵 ...”(제3수); 같은 책, 『東槎錄(下)』, <詠軸上畫, 贈連上人(二首)>, 314쪽, “... 經年仍住海邊山 ...”

99) 李廷龜, 『月沙集 II』 卷39, 『序(上)』, <送沈德顯赴扶安感舊遊詩序>, 139쪽, “如所謂海仙臺, 雖在金剛, 宜爲第一, 殆與佛頂臺相類而遠過之, 地僻路險, 人罕觀者.”

100)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2쪽, “遠過佛頂臺, 余博詢無有知者, 無乃天慳地秘, 不許俗人觀耶.”

101) 宋秉璿, 『淵齋集』 卷1, 『詩』, <邊山>, 22쪽, “蓬山奇出海心空, 龍處騰蟠勢轉雄, 翛然不覺瀛洲遠, 月頂臺邊欲馭風.”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재함을 나타낸 소연(翛然)은 『莊子』, <大宗師>에서 “옛날의 진인(真人)”에 대한 설명 중에서, “초연히 세상을 떠나고 초연히 세상에 태어날 따름이다.[翛然而往, 翛然而來而已矣.]”라고 한 구절에서 따온 표현임.

시에, 또한 『장자(莊子)』에 등장하는 초연한 진인(真人)의 심정으로 변산반도가 곧 신선이 사는 영주임을 설파해 보였다. 나아가 “바람을 타고 노닐[馭風遊]”<sup>102)</sup>, 곧 자재한 신선이 되어 두 발로 충분히 완상(玩賞)하지 못한 월정대와 불정대 일대를 자유롭게 유람하고픈 소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송병선은 상봉 유람을 마친 후 월명암의 요사채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에, 다시 정상에 올라 조망한 바다 풍경을 ‘기관(奇觀)’이라 평하면서, 주자(朱子)의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가는 것 같네![朗吟如下祝融峯]”라고 읊은 대목<sup>103)</sup>도 절창으로 사료되지만, 다 소개하지는 않는다. 다만, 22편의 유기에 자주 등장하는 주희(朱熹, 1130~1200)와 관련된 언술들이란, 송병선이 착지한 근본 주자 학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하게 방증해 준다는 점을 부기해 둔다.

결과적으로 선인(先人)의 유람기를 참조한 <변산기>는 송병선이 남긴 「유호남기」 중에서, 사찰·암자와 소(沼)·대(臺)·굴(窟) 따위를 망라한 산수의 실경 묘사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 특히 <변산기>는 변산의 반도적·지형적 특성을 바다 풍경의 묘사를 통해서 수월하게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부안의 역사적·문화적 콘텐츠를 산출하는 작업에 귀중한 지적 원천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4. 맺음말

이상의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서 송병선의 「유호남기」에 수록된 전북 지역과 관련된 유기 4편을 분석하되, 전남을 포함한 여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유기를 두루 원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소개하였다. 그 결과 송병선은 그만의 독특한 안목[創目]에 입각해서 전북의 명산 4곳을 “있는 그대로의 그림에서 나온 듯한 실경(實景)”처럼 묘사해 남과 동시에, 또한 전국의 명산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산수평을 제시한 일관된 서술 체제를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적기한 사항은 「유호남기」의 가장 특징적인 국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02) 鄭夢周, 『圃隱集』 卷2(한국문집총간 5), 「詩」, <記夢(癸亥十月初八日, 夜夢圃隱田先生)>, 한국고전번역원, 1990, 595쪽, “有美一人不可忘, 飄然馭風遊何鄉 ... 使我懷抱鬱不平.”

103) 宋秉璿, 『淵齋集』 卷21, 「雜著」, <邊山記>, 362쪽, “還下月明, 寄宿傍寮, 早起復上, 海雲濛濛, 變態無常, 堆積雪城, 履底乾坤, 如混沌未覈時, 亦奇觀也, 遂詠朱先生朗吟飛下祝融峯之句.”

한편 송병선은 『유호남기』를 통해서 사찰·암자와 그 주변 전경, 고승의 비문·사암의 이력 등을 망라한 불교적 서술단위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점도 뚜렷한 특징에 해당한다. 송병선이 수행한 사찰·암자와 그 주변을 둘러싼 서술 방식이란, 사실주의적·실경적 산수 묘사와 극히 조용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유교적 서술단위의 분량은 소량에 불과한 편이다. 그러나 송병선의 『유호남기』에 등장하는 술한 문인들의 명단과 독경(讀經)·강론(講論) 장면은 연재학단의 운영 방식과 유대감의 정도를 엿보게 해주는 귀한 자료적 가치를 내장하고 있다. 또한 ‘해악(海嶽)’으로 칭한 변산반도를 유려한 문장으로 그려낸 <변산기>의 경우, 이상에서 논급한 제반 사항들을 충족한 유기일뿐더러, 또 권극립과 이정귀가 남긴 앞선 기록을 참조하여 지은 유람기라는 측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런가 하면 송병선은 산행 도중에 자주 “술을 청하여 술잔에 가득 따라 마시는” 장면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같은 정황은 송병선이 변산의 최고봉인 월정대 주변에서 “바람을 타고 노니는[馭風遊]” 유람을 갈구한 대목과 의미의 리듬이 맞닿아 있는 것으로, 그의 산수 여행이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풍류(風流)의 구가를 곁했던 정황을 방증해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호남기』에 등재된 9편의 작품 모두가 송병선이 두 발로 직접 등산(登山)한 결실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송병선도 금강산 유람 시에는 일부 구간에서는 “유점사[楡岾]의 승려가 가지고 온 가마[藍輿]”를 탔고, 또 사찰 측에서 제공한 점심 식사를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다.<sup>104)</sup> 여하간 이 사안과 관련하여 9편의 유람기 중에서, <변산기>의 아래 대목이 두 발로 걸어서 등정(登頂)하는 고충을 가장 실감 나게 기술해 둔 문장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참에 『유호남기』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찬찬히 음미해 보기로 한다.

“왼쪽으로 꺾어서 올라가니, 매우 가파르며 험하고 높다. 곧장 위로 올라간 것이 5~6리요, 구불구불하게 등산[登]한 거리가 또한 3, 4리인데, 비틀거리기도 했고 기어 포복(匍匐)하기도 하였으며, 돌 비탈을 붙들고 오르기도 하여, 나아가고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은 끝에, 드디어 그 정상에 다다랐으니, 진정 이른바 ‘차레를 따라 조금씩 나아가고, 아래를 배워 위에 도달하여, 스스로 고명(高明)한 경지[域]를 일군다.’는 것이다.”<sup>105)</sup>

104) 宋秉璫, 『淵齋集』 卷20, 「雜著」, <東遊記·自摩訶衍歷隱仙臺至楡岾寺記>, 340쪽, “楡岾僧持藍輿來候, 下至嶺腰, 僧供午飯以進.”

위의 인용문은 <변산기>로 대변되는 「유호남기」가 실상은 「등유호남기(登遊湖南記)」에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증하게 확인시켜 준다. 또한 『논어(論語)』와 그 주해(註解), 『중용(中庸)』의 가르침을 원용한 후반부의 글은 유람을 통해서 도학 문장의 원천을 함양하고자 했던 송병선의 의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윗글은 송병선이 두 발로 걸어서 임한 호남 산수 유람이 ‘양기(養氣)’로 칭한 기력 배양, 곧 등산이 선사하는 체력 증진의 효과를 몸소 체험했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이렇듯 「유호남기」는 송병선이 주기적으로 단행한 산수 유람의 결이 매우 다채로운 의미망을 직조한 문학적 결실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논문접수일: 2025. 03. 02. / 심사개시일: 2025. 04. 01. / 게재확정일: 2025. 04. 24.

105) 宋秉璿, 『淵齋集』卷21, 「雜著」, <邊山記>, 362쪽, “左折而上, 崎嶇嶮峻, 直上者爲五六里, 迤登者亦三數里, 蹣跚匍匐, 攀磴而升, 進進不已, 遂窺其頂, 眞所謂循序漸進, 下學上達, 自造高明之域, 坐憩樹陰, 巡酒止渴.”

## 참고문헌

『孟子集註』·『周易』·『莊子』

金麟厚, 1989, 『河西全集』 (한국문집총간 33), 한국고전번역원.

金昌協, 1996,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2), 한국고전번역원.

朴世堂, 1994, 『西溪集』 (한국문집총간 134), 한국고전번역원.

宋秉璿, 2004, 『淵齋集』 (한국문집총간 329), 한국고전번역원.

宋時烈, 1993, 『宋子大全 VIII·附錄』 (한국문집총간 115), 한국고전번역원.

宋煥箕, 2000, 『性潭集』 (한국문집총간 244), 한국고전번역원.

林薰, 1988, 『葛川集』 (한국문집총간 28), 한국고전번역원.

李廷龜, 1991, 『月沙集 I·II』 (한국문집총간 70), 한국고전번역원.

鄭夢周, 1990, 『圃隱集』 (한국문집총간 5), 한국고전번역원.

김중수, 2023a, 「연재 송병선의 생애와 학문세계」, 『한국유교문화』 1,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김중수, 2023b, 「연재 송병선의 임피향약 연구」, 『민속학연구』 52, 국립민속박물관, 111-137쪽.

김중수, 2023c, 「연재 송병선의 자정노선과 무주 서벽정 영건」, 『전북학연구』 9, 전북학 연구센터, 29-60쪽.

유영봉, 2021, 「연재 송병선의 놀이방식과 의와그의 유기를 바탕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5(8),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315-325쪽.

유정열, 2021, 「갈천 임훈의 <등덕유산향적봉기> 연구-산지적(山誌的) 성격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60,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49-75쪽.

이병찬, 2011, 「연재 송병선의 유기문학 연구」, 『어문연구』 68, 어문연구학회, 333-363쪽.

이철성, 2018, 「淵齋 宋秉璿의 黃山舟遊와 문화경관 인식-『遊黃山及諸名勝記』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70, 고려사학회, 317-345쪽.



<Abstract>

## A Study on Yeonjae(淵齋) Song Byeong-seon(宋秉璿)'s 「Yuhonamgi(遊湖南記)」

Centering on Jeonbuk(全北) Region

Kim Jong-su\*

Yeonjae Song Byeong-seon who acted in the late Joseon period was a great Confucian scholar who shared the Yeonjae school(淵齋學派) with his juniors Shim Seok-jae(心石齋) Song Byeong-soon(宋秉琣). After Song Byeong-seon entered into the three phase which is a period of academic intensification in his life that is summarized as comparison of lecturing, educational·writing activities and entry into a government position, it is noticeable that he enjoyed traveling in earnest to famous mountains throughout the nation. For example, 「Yuhonamgi」 he wrote after appreciating the scenery of Honam in 1869년(39) keeps the average aspects of 22 posthumous works created by Song Byeong-seon, and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of historical correlatives as well as real scenery of famous mountains in Honam area of the past. Thus, this study established 4 pieces of <Jirisanbungnokgi>(Namwon)·<Dosolsangi>(Gochang)·<Byeonsangi>(Buan)·<Deogyusangi>(Muju) targeting landscape of Jeollabuk-do area as a central descriptive unit and conducted a research in a dimension of citing histories of sightseeing to other areas.

As a result, this study confirmed that a Buddhistic descriptive unit makes up the largest percentage in 4 pieces of visit history targeting landscape of Jeollabuk-do. Although a Confucian descriptive unit also takes a fixed amount but falls short of Buddhism. Instead, the list of writers accompanied by Song Byeong-seon or reading the scriptures·lecturing activities made in the mountains provided a glimpse of the present situation of Yeonjae school.

In conclusion,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 of 「Yuhonamgi」 was identified as description of real scenery landscape(實景) he performed from the point of comparison along with discerning evaluation of landscape. Especially,

---

\* Instructor at the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Semyung University

<Byeonsangi> keeps the overall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and is evaluated as the most outstanding history of sightseeing in a sense that he described Byeonsanbando with a florid sentence by calling it 'seas and mountains(海嶽)'. In addition, 「Yuhonamgi」is considered the result that Song Byeong-seon climbed personally on two feet, enabling us to know that his sightseeing combines the characteristic of sports serving as cultivation of energy.

Key Words : Yeonjae Song Byeong-seon, Landscape sightseeing, Yuhonamgi,  
Description of real scenery landscape, Jeollabuk-do area, Sports